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정답

| | | | | | | | | | |
|----|---|----|---|----|---|----|---|----|---|
| 1 | ② | 2 | ① | 3 | ② | 4 | ③ | 5 | ⑤ |
| 6 | ② | 7 | ④ | 8 | ⑤ | 9 | ② | 10 | ④ |
| 11 | ① | 12 | ③ | 13 | ② | 14 | ② | 15 | ① |
| 16 | ② | 17 | ③ | | | | | | |

[1~2] 2014.07B 독서법

1.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독서의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독서 능력에 맞게 독서 분량을 조절하며 읽는다.
→ 독서 능력에 맞게 독서 분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내용은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 ② 책을 읽어 가는 과정에서 의문을 품으며 읽는다.
→ 1문단에서 책을 읽으면서 크게 의심하면 크게 진보한다는 주자의 말을 인용하며 책을 읽으며 의심을 품을 것을 권하고 있다.
- ③ 다양한 참고 도서를 찾아 비교하며 읽는다.
→ 다양한 참고 도서를 찾아 비교하며 읽어야 한다는 내용은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 ④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며 읽는다.
→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며 읽어야 한다는 내용은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 ⑤ 글의 내용을 요약하며 읽는다.
→ 글의 내용을 요약하며 읽어야 한다는 내용은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2. 윗글의 글쓴이가 <보기>의 ‘나’에게 할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나는 연암 박지원의 기행문인 『열하일기(熱河日記)』 중,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를 읽었어. 이 글은 필자가 강을 아홉 번 건넌 경험을 통해, 사물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눈과 귀로 지각한 외물(外物)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어. 필자는 강물을 건너는 데 눈과 귀가 방해가 된다고 하였지만, 나는 오히려 강을 건널 때 눈과 귀뿐만 아니라 모든 감각기관을 활용해야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 ① 책을 읽을 때에는 책에 담겨 있는 본래의 뜻을 헤아리며 읽어야 한다.
→ <보기>의 ‘나’는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를 읽고, 필자의 생각과 다른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윗글의 글쓴이는 책을 읽을 때에는 경전의 뜻과 견해가 다른 것이 있다면 그 견해가 다른 곳에 나아가서 어느 쪽이 나은지 헤아려 볼 것을 권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견해를 우선하지 말고 책에 담긴 본래의 뜻을 헤아리며 읽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 ②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가 내용을 전달하는 데 적절한지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에 대한 내용은 윗글에 등장하지 않은 정보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③ 독자는 필자의 생각을 다른 관점으로 바꾸어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며 읽어야 한다.
→ 필자의 생각을 다른 관점으로 바꾸어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야 한다는 내용은 윗글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④ 글의 내용이나 필자의 생각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
→ 윗글은 글의 내용과 ‘나’의 생각 중 어떤 것이 더 나은지 헤아려 볼 것을 권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여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 ⑤ 글의 종류를 고려할 때, 전문과 감상을 구분하여 여정에 따른 견문에 주목하여 읽어야 한다.
→ 글의 종류에 따라 달리 읽어야 한다는 내용은 윗글에서 찾을 수 없다.

[3~7] 2008.03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김수영 ‘눈’, 김부식 ‘감로사차혜원운’

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는 상황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자세가 나타나 있다.
→ (가)는 현재 상황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나)는 ‘눈’이라는 대상과 ‘기침’을 하는 행위를 통해 ‘가래’와 같은 것을 뱉어내는 정확한 행위를 추구하고 있다. 즉, (가)와 (나) 모두 상황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자세가 나타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가)와 (다)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이 나타나 있다.
 → (가)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에서, (다)의 ‘부끄럽구려, 달팽이 더듬이 위에서 반평생 헛이름만 찾고 있구나’에서 화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와 (다)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의지가 드러나 있다.
 → (다)는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자신에 대한 반성을 하는 내용의 시이다. 이 시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④ (가)~(다)에는 대상의 부재나 결핍으로 인한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다.
 → (가)~(다) 모두 대상의 부재나 결핍으로 인한 안타까움은 확인할 수 없다.

⑤ (가)~(다)에는 자신이 가려는 길에 타인도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가)~(다) 모두 자신이 가려는 길에 타인의 동참을 촉구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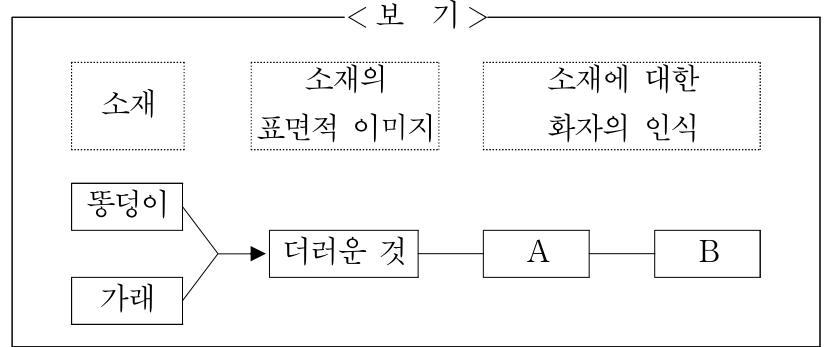
4. (가)의 제목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고자 할 때, 다음 내용 중에서 (가)의 주제 의식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끼리 묶은 것은?
 [3점]

| | |
|--|---|
| <p><대장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구들을 만드는 공간.....㉗ ○ 사물을 단련하여 가치 있는 물건으로 만드는 생산적 공간.....㉘ | <p><유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다 의미 있는 존재로 변화하고 싶은 갈망...a ○ 대상을 현혹하여 지배하고 싶은 욕망.....b ○ 자기 스스로의 매력에도 취되어 살고 싶은 희망...c |
|--|---|

- ① ㉗ - a ② ㉗ - c ③ ㉘ - a
 ④ ㉘ - b ⑤ ㉘ - c

[해설] (가)에서 대장간은 풀무질을 하고 모루에서 버리고 솥돌에 가는 행위를 통해 무쇠낫, 호미와 같이 유용한 물건으로 만드는 장소이다. 즉, ㉘의 의미가 주제 의식과 좀더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의 화자는 대장간에서 자신을 무쇠낫, 호미로 바꾸고 싶어한다. 이는 자신이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드는 생각이므로, 자신을 보다 의미있는 존재로 변화시키고 싶은 갈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5. 시상의 흐름을 바탕으로 [똥덩이]와 [가래]의 시적 의미를 <보기>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A와 B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 A | B |
| ① 망각의 대상 | 화자의 발전한 모습 |
| ② 망각의 대상 | 화자의 감추고 싶은 모습 |
| ③ 배출의 대상 | 타인에 대한 화자의 동정 |
| ④ 배출의 대상 | 자신에 대한 화자의 연민 |
| ⑤ 배출의 대상 | 화자 자신의 부정적인 요소 |

[해설] (가)의 화자는 ‘똥덩이’를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대상으로 배출되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나)에서 화자는 고인 가슴의 ‘가래’를 뱉어낼 것을 권하고 있으므로 가래 역시 배출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가)에서 화자는 자신의 인생이 부끄러워짐과 동시에 자신이 ‘똥덩이’처럼 느껴진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는 화자 자신의 부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또한, (나)에서 ‘가래’는 젊은 시인의 가슴속에 고인 이물질로 뱉어내는 행위를 통해 정화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역시 화자 자신의 부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6. 시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다음의 내용을 고려하여 ㉠의 의미를 해석한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p>‘눈[雪]’의 상징</p> <p>순수, 결백, 정화 시련, 냉혹함</p> | <p>‘눈[眼]’의 의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 ↓ ■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힘 |
|---|--|

- ① 탈속의 세계를 지향하는 정화된 시선을 뜻한다.
 → 이 시와 탈속의 세계는 관련이 없다.
- ② 옳고 그름을 가려낼 줄 아는 순수한 생명력을 뜻한다.
 → 눈[雪]이 상징하는 ‘결백, 순수’의 의미와 눈[眼]이 갖는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힘’의 의미를 결합하면 ㉠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순수한 생명력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③ 결백함과 불순함이 혼재된 화자의 내면 세계를 뜻한다.
 → 눈[雪]이 '순수'를 상징하는 대상인 만큼 불순함을 의미한다고 보는 해석은 부자연스럽다.

④ 냉혹한 현실로부터 도피하려는 화자의 나약함을 뜻한다.
 → 눈[雪]이 '냉혹함'을 상징할 수는 있으나, 눈은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살아있는 대상이다. 즉, 눈이 화자의 나약함을 뜻한다고 보는 것은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해석이다.

⑤ 닳쳐올 시련을 인식하지 못하는 근시안적 태도를 뜻한다.
 → 눈[雪]이 '시련'을 상징할 수는 있으나, 눈은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살아있는 대상이다. 적어도 이 시에서 눈이 시련을 주는 대상으로 해석되기는 어렵다.

7. (다)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다)는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 때, 감각적 심상이 활용되지는 않았다.

②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다)의 화자는 과거에 대한 반성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으나,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③ 동일한 소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다)에서는 동일한 소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④ 외부 상황 묘사에서 화자의 내면으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다.
 → (다)의 화자는 산, 강과 같은 외부의 상황을 묘사한 후, 자신이 헛이름만 찾고 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⑤ 색채를 대비하여 계절의 변화 과정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다)에서는 가을이라는 계절 하나만을 묘사하고 있을 뿐, 계절의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는 없다.

[8~11] 2009.07 인문

8. 윗글을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때, 그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세 가지 자아 상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2, 3문단에서 세 가지 자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글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중적 메시지를 보내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
 → 이중적 메시지를 보냈을 때의 결과에 대한 내용은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③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메시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4문단에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메시지와 관련하여 언급된 내용이 있긴 하나, 글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 4문단의 보완적 교류의 내용에서 대화가 계속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으나, 이 내용이 글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역기능적 대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 5문단에서 교류분석을 역기능적 대인 관계의 양상을 설명하고 문제를 발견 및 수정하기 위한 연구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글은 1문단부터 5문단까지 교류분석과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은 ㉡를 바탕으로 하여 분석한다.
 → 선후관계가 바뀌었다. 3문단의 첫문장에 따르면 ㉠을 바탕으로 ㉡를 분석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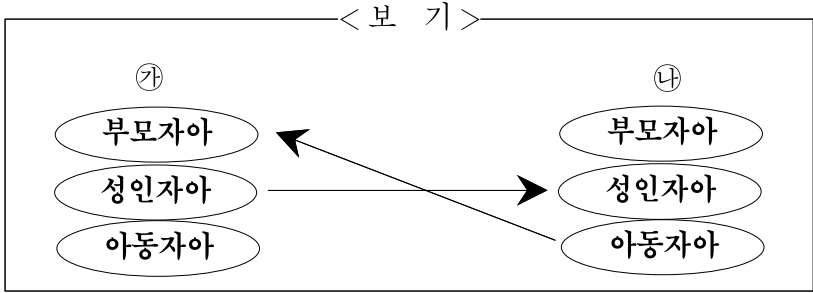
② ㉠은 개인을, ㉡는 대인 관계의 양상을 분석한다.
 → ㉠은 욕구와 상황에 따라 개인이 사용하는 세 가지 자아 상태에 대해, ㉡는 ㉠의 내용을 바탕으로 타인과의 교류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분석한다. 따라서 적절하다.

③ ㉠은 적절한 자극을, ㉡는 적절한 반응을 분석한다.
 → ㉠은 욕구와 상황에 따른 자아 상태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때, 자아 상태의 내용과 기능에 주목하고 있을 뿐, 적절한 자극과는 관련이 없다.

④ ㉠은 언어적 메시지를, ㉡는 비언어적 메시지를 분석한다.
 →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⑤ ㉠은 의사교류의 과정을, ㉡는 의사교류의 결과를 분석한다.
 → 의사교류에 대한 모든 내용은 ㉡의 내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0. 윗글을 바탕으로 ㉠을 <보기>와 같이 나타내 보았다. ㉡와 ㉢의 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 이 문제는 짜증나서 못 풀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 그래. 내가 해줄게. 맡겨 두라고!
 → ㉡는 아동자아가 부모자아에게, ㉢는 부모자아가 아동자아에게 보내는 자극으로 보완적 교류로 볼 수 있다.
- ② ㉡: 요새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고 돼먹지 않았어. 너도 그래.
 ㉢: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지도해 주세요.
 → ㉡는 부모자아가 아동자아에게, ㉢는 아동자아가 부모자아에게 보내는 자극으로 보완적 교류로 볼 수 있다.
- ③ ㉡: 이렇게 방이 지저분해서 되겠니? 그러고도 고등학생이야?
 ㉢: 요즘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만 봐주세요.
 → ㉡는 부모자아가 아동자아에게, ㉢아동자아가 부모자아에게 보내는 자극으로 보완적 교류로 볼 수 있다.
- ④ ㉡: 그건 품질에 비해 좀 비싼 것 같은데, 너의 판단은 어떠니?
 ㉢: 왜 나한테만 그래. 나도 비싼 옷 입고 싶단 말이야.
 → ㉡는 성인자아가 성인자아에게, ㉢는 아동자아가 부모자아에게 보내는 자극으로 교차적 교류로 볼 수 있다. 이는 <보기>의 교류에 부합한다.
- ⑤ ㉡: 아침을 못 먹어 배가 고프네요. 잠깐 나가서 뭐 먹고 오면 안 될까요?
 ㉢: 아직 일과 시간 중이야. 점심시간에 가자.
 → ㉡는 성인자아가 부모자아에게, ㉢는 성인자아가 성인자아에게 보내는 자극으로 교차적 교류로 볼 수 있다.

11. ㉠과 관련하여 다양한 예문을 찾아 유의어를 적은 것이다. ㉡의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 예문 | 유의어 |
|---|---|------|
| ① | 지방마다 <u>다른</u> 생활과 풍습이 있다. | 상이하다 |
| | → 예문의 '다른'은 '상이하다'의 의미를 갖는데, 이는 '서로 같지 않다'는 의미이다. ㉡의 의미도 '서로 같지 않다'로 볼 수 있으므로 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
| ② | 이러자 저러자 의견이 <u>달라</u> 끝이 없다. | 분분하다 |
| | → 예문의 '다른'은 '분분하다'의 의미를 갖는데, 이는 '소문, 의견 따위가 많아 갈피를 잡을 수 없다.'의 의미이다. 따라서 ㉡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 |
| ③ | 나의 기대와 <u>달리</u> 여행 내내 비가 왔다. | 어긋나다 |
| | → 예문의 '달리'는 '어긋나다'의 의미를 갖는데, 이는 '기대에 맞지 아니하거나 일정한 기준에서 벗어나다.'의 의미이다. 따라서 ㉡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 |
| ④ | 그에게는 아주 <u>다른</u> 그 무엇인가가 있다. | 특별하다 |
| | → 예문의 '다른'은 '특별하다'의 의미를 갖는데, 이는 '보통과 구별되게 다르다.'의 의미이다. 따라서 ㉡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 |
| ⑤ | 볼이 부어 입술이 <u>다른</u> 곳에 붙은 것 같다. | 엉뚱하다 |
| | → 예문의 '다른'은 '엉뚱하다'의 의미를 갖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의 의미이다. 따라서 ㉡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 |

[12~14] 2015.03 작자 미상 '운영전'

12.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김 진사'는 부처님에게 '특'의 죽음을 기원했다.
 → '김 진사'는 '부처님, 특이란 중놈의 목숨을 끊고 쇠로 만든 칼을 씌워 지옥에 가두어 주옵소서.'라며 '특'의 죽음을 기원하였다.
- ② '김 진사'는 청량사에서 '특'의 행적을 전해 듣고 분노했다.
 → '김 진사'는 청량사에 공부를 핑계 삼아 올라가 며칠을 묵으며 '특'이 한 짓에 대해 자세히 듣게 되었고, 분노하였다.
- ③ '김 진사'는 '운영'의 재생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포기했다.
 → '김 진사'는 '특'으로 하여금 '운영'의 명복을 빌어주기 위해 불공을 드리하고자 했으나, 이것이 실패한 후, '운영'을 되살리고 '특'이 죽기를 바랐다. '특'이 죽은 이후 '김 진사'도 죽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운영'의 재생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 ④ ‘김 진사’와 ‘운영’은 가끔씩 속세에 내려와 추억의 장소를 방문하고 있다.
→ ‘때때로 회오리 바람 수레를 타고 내려와 속세에서 예전에 노닐던 곳을 찾아보곤 한답니다.’라는 ‘김 진사’의 말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 ⑤ ‘김 진사’와 ‘운영’은 그들을 속세에 환생시키려고 한 ‘염라대왕’의 배려를 거절했다.
→ ‘염라대왕’은 ‘김 진사’와 ‘운영’이 죄 없이 죽은 것을 가련히 여겨 속세인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하려 하였으나 이들은 천상의 즐거움이 인간 세계보다 나으므로 환생을 거부하였다.

1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운영전」은 몽유자가 꿈속에서 남녀 주인공을 만나 겪은 일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는데, 현실이라는 외부 이야기 속에 꿈이라는 내부 이야기가 들어 있는 액자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 주인공들이 천상계에서 죄를 지어 지상계로 내려왔다가 다시 천상계로 돌아가는 적강 화소(謫降話素), 남녀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목소리로 말하게 한 발상, 삽입된 시와 서사 전개 간의 밀접한 연관, 비극적 성격 등이 잘 어우러져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① 몽유자가 꿈에서 깨어난 후 발견한 책은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를 매개하는 소재로 볼 수 있군.
→ 윗 글에서 몽유자인 유영이 꿈에서 깨어나 발견한 김 진사가 기록한 책은 내부 이야기인 운영과 김 진사의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인 유영의 이야기를 매개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 ② 몽유자가 꿈속에서 남녀 주인공을 만나 그들의 사연을 듣는 공간을 천상계로 설정하여 몽환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군.
→ 몽유자인 유영이 운영과 김 진사를 만난 곳은 수성궁으로 지상에 존재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그들의 사연을 듣는 공간은 지상계로 설정되어 있다.

- ③ 내부 이야기에 남자 주인공이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는 부분이 있어 상황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을 엿볼 수 있군.
→ “운영이 죽을 당시~보답하겠나이다.”는 내부 이야기에서 남자 주인공인 김진사가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발화는 상황을 바라보는 남자 주인공의 시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 ④ 내부 이야기에서 남녀 주인공이 한을 품고 죽는 것과 외부 이야기에서 몽유자가 망연자실하여 침식을 폐하는 것으로 보아 이 작품이 비극적 성격을 지녔음을 알 수 있군.
→ 내부 이야기에서 운영은 김 진사와의 사랑을 안평대군에게 들켜 자결하였고, 김 진사는 세상에 뜻을 잃고 식음을 전폐하여 죽었다. 이렇게 한을 품고 죽은 남녀 주인공과 외부 이야기에서 몽유자인 유영이 침식을 폐하기에 이르는 모습은 작품의 비극적 성격을 잘 드러낸다.
- ⑤ 남녀 주인공이 읊은 시는 특정 공간의 현재 상황을 제시한 내용과 연관되어 그들이 느끼는 슬픔과 무상감을 부각하는군.
→ 김 진사와 운영은 시를 읊으며 전쟁으로 인해 잿더미가 되어버린 수성궁에 대해 슬픔과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14.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각오를 밝히고 있다.
→ ‘바닷물이 마르고 바위가 문드러’지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며 각오를 밝히고 있다.
- ② 보답을 암시하며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김 진사가 유영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나, 보답을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만남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오늘 밤 그대와 만나 이렇게 회포를 풀었으니 전생의 인연이 없었더라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유영과 자신들의 만남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이 해야 할 일을 제시하며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 김 진사는 유영이 자신들이 쓴 글을 수습하여 영원히 전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 ⑤ 우려되는 상황을 거론하며 막아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 김진사는 자신들의 이야기가 ‘경망스런 사람의 입에 헛되어 전해져 우스갯거리가 되지 않도록’ 막아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15~17] 2010.04 과학

15. 윗글로 미루어 답을 알 수 있는 질문만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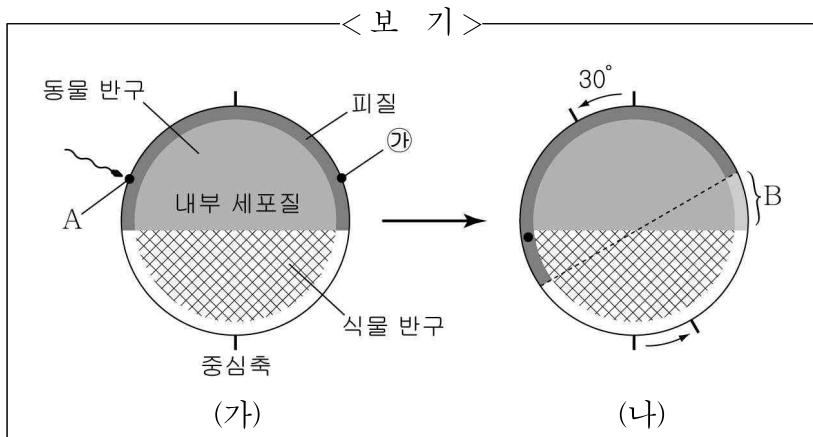
< 보 기 >

ㄱ. 식물 반구와 동물 반구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
 ㄴ. 각 배엽층의 세포는 어떤 기관으로 분화되는가?
 ㄷ. 세포분열 과정에서 난황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ㄹ. 양서류의 난자에 색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해설] ㄱ. 2문단에서 식물 반구는 양분 분자들이 농축된 난황이
있어 저장의 역할을 하며, 식물 반구의 피질에는 색소가 없
다고 한다. 한편 동물 반구는 세포 소기관이 많이 분포해 주로
대사 활동을 하며, 피질에 색소가 많고 내부 세포질에는 색소
가 적게 분포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ㄴ. 4문단에서 내배
엽은 소화기와 호흡기 등, 외배엽은 신경계와 피부 등, 중배엽
은 혈관이나 뼈 등의 신체기관이 됨을 알 수 있다. ㄷ. 세포
분열 과정에서 난황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다. ㄹ. 양서류의 난자에 색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
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다.

16. <보기>는 ㉠이 형성되는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토
대로 이해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정자 진입지점이 A에서 ㉠로 바뀌면, 난자 피질의 회전 방
향도 ㉠쪽으로 바뀔 것이다.
 → 2문단에서 정자가 난자의 동물 반구 쪽으로 진입하면 진입
지점 방향으로 약 30°정도 동물반구 피질이 회전한다고 하였
다. 만약 진입 지점이 A에서 ㉠로 바뀌면 ㉠쪽으로 회전 방
향이 바뀔 것이다.
- ② A는 동물 반구의 피질 부분으로 배엽층을 형성하게 하는 신
호를 보내는 곳이다.
 → 4문단에서 배엽층을 형성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곳이 회색신
월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회색 신월환은 2문단에서
동물 반구 경계 부위의 세포질 부위가 노출된 부분이다. 즉,
A가 아닌 B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B는 (가)의 수정 단계 이후 회색신월환이 형성된 부분이다.

→ 2문단에 따르면 동물 반구의 피질이 정자 진입지점 방향으로
회전하며 노출된 동물 반구 경계 부위의 세포질 부위가 회색
신월환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④ B는 피질이 회전하여 동물 반구의 세포질 색소가 노출된 부
분이다.

→ 2문단에 따르면 회색신월환은 동물 반구의 피질이 회전하면
서 동물 반구 경계 부위의 세포질 부위가 노출되어 회색의 초
승달 모양처럼 보이는 부분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⑤ (가)에서 (나)로 진행되는 동안 식물 반구와 동물 반구 피질
의 색소 분포가 변화한다.

→ 동물 반구의 피질이 회전하는 것과는 달리 수정란 안쪽의 세
포질은 회전하지 않는다. 따라서 식물 반구로 색소가 있는 동
물 반구의 피질이 이동하고 그만큼 동물 반구로 색소가 없는
식물 반구의 피질이 이동한다. 즉, 식물 반구와 동물 반구 피
질의 색소 분포가 달라진다.

17. [A]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의문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정상적인 발생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물질은 무엇인가?
 → 정상적인 발생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물질은 언급되지 않
았다.
- ② 세포 소기관의 대사 활동이 이루어지는 부위는 어느 곳인가?
 → 세포 소기관의 대사 활동이 이루어지는 부위에 대해 언급하
지 않았다.
- ③ 발생에 필요한 세포질 요소가 수정란의 어느 부위에 분포하
는가?
 → [A]실험은 회색 월환이 양쪽으로 나뉘도록, 하나는 한쪽에만
있도록 묶고, 발생의 단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즉, [A]는 발생에 필요한 세포질 요소가 회색신월
환에 있음을 알 수 있는 실험이다.
- ④ 정상적인 수정란에서 동물반구와 식물반구의 역할의 차이점
은 무엇인가?
 → 정상적인 수정란에서 동물반구와 식물반구의 역할의 차이점
은 2문단에서 알 수 있다. 하지만 [A]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
는 내용은 아니다.
- ⑤ 수정란이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의 세포층을 형성하는 시기
는 언제인가?
 → 4문단에서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의 세포층을 형성하는 것은
회색신월환의 요소가 세포들에 이동 신호를 보내면 시작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A]실험은 두 방법으로 묶은 수
정란에 이러한 발생의 과정이 진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것
이지 언제 진행되는지를 확인한 실험이 아니니, 실험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